

기도는 쌍방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려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일깨우십니다(롬 8:26-27).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어 자신을 조정하십시오.

내 생각이나 세상의 조언을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앉으십시오. 육신의 소리를 차단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때, 정욕이나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복은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깊이 묵상한 사람,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도로 이어 가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는 응답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길 원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묵상을 통해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 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성령께 묻고 있습니까?
- ② 응답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도 듣고 있습니까?